

나무심기 계절,
전국 곳곳에서 내나무갓기 캠페인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4월 5일 제67회 식목일을 전후한 1개월여 동안 '나무심기로 지속되는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내 나무 갓기 캠페인 등 다채로운 나무심기 행사를 갖었다. 3월 말부터 지역별 일정에 맞게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134곳에 유실수와 조경수 등 200만여 그루의 묘목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나무 나눠주기'와 도시 근교 112곳 190ha에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내 나무심기' 등의 이벤트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올해 전국에 학교숲 145개 만든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시행...
"부족한 생활권 녹지확보에도 도움"



올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145개의 학교숲이 만들어진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각 초·중·고등학교에 숲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친자연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의 부족한 녹색공간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3월 21일 이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조성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학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등 활용 촉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기공식 개최



산림청은 3월 16일 오전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자락에서 아시아 최대 고산수목원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기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서 이돈구 산림청장은 "수목원이 완성되면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현지 보전연구가 강화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내 산림생태자원도 다양해질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단 및 단체 등의 산불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봄철 산불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가 2월 2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돈구 청장은 "금년에는 산불다발 우려시기인 3~4월에 핵안보정상회의와 19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산불경각심이 이완되고 산불대응력이 약화될까 우려스럽다"며 "평시에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동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자원육성 종합계획 토론회 27일 산림과학원서 '산림자원육성계획' 토론회 ...기능별 가치 최적화 방안 마련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월 27일 오후 서울 홍릉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이돈구 산림청장 등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산업체와 임업관련단체 인사, 산주 및 임업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자원 육성 종합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종합계획은 경제림 육성중심의 산림경영 관행을 뛰어넘어 자연환경·재해예방·휴양·경관 등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이 서로 어우러져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산림을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숲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1회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산림청(이돈구 청장)은 2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올해 첫 산림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해 새로 구성된 40명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데 이어 지난해 성과와 함께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산림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